

그랜드래피즈 한인 은혜교회 Korean CRC

기도 Prayer by Tim Keller

2020 01 17



오혜인 (캘빈 대학교 3 학년)

팀 켈러의 “기도”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렸을적, 항상 무엇을 원하면 기도하라고 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기도는 항상 많이 해왔습니다. 밥 먹기전, 자기전, 무서운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금요기도회때... 뒤돌아보면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고 직접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목격한적도 수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 되었고, 제가 하는 “기도”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대한 반응, 내 마음이 편해지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익숙해져서 기도의 위대함을 까먹고 살았고, 무엇보다 기도에 발전이 없었다는걸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는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글로 배울 수 있는건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교만함이였다는걸 책을 계속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아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책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배우고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여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신과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소통한다는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이하면서도 표현할수 없을만큼 감사한 일인거 같습니다. 갈길은 멀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생활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김예현 (캘빈 대학교 3 학년)

저는 선교사 자녀로서 아주 어렸을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어렸을때부터 너무 자연스러웠고 당연했으며 기도 또한 너무 당연시 하고 평범하게 느껴졌다는걸 “팀 켈러의 기도”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기도란 습관적인 행동에 불과했고, 밥 먹기 전에 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것, 도움을 찾을 때 하는 것,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는 습관적 행동이 되버렸다는걸 느꼈습니다. 저가 은혜교회 성경공부를 통하여 이 책을 읽으며 기도에 대한 너무 많은 것을 배우며 느끼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가 얼마나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지 느끼며, 습관처럼 하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실지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깊이 하게되었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함의 중심적인 것, 기초되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될지 방향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찾은것 같아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를 읽으며 너무나도 은혜롭고 반성하며 배울수있는 시간이 될수있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문배 (리더)

팀 켈러의 <기도>는 한국 교회에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권을 추천하라면 리처드 포스트(Richard Foster)의 <기도>(Prayer)와 Timothy Keller 의 Prayer 를 추천할 것입니다. 리처드 코스트의 기도는 그의 출신 배경인 Quaker 처럼 실제적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기도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 팀 켈러의 <기도>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고백적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권을 책을 함께 읽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기도는 리처드 포스트의 기도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성령기도 등 열정적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지 가르치기에는 팀 켈러의 <기도>가 효과적입니다.

기도가 <간구>라는 개념이 많았었는데, <가족의 교제>라는 개념이 좋습니다. 가족간자녀들이 꼭 무슨 필요가 있을 때에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다면 참 삭막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의 일상을 말하고 듣고, 대화하는 것이 가족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가족간의 일상의 대화로 폭이 넓어지도록 함께 sharing 해 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을 묵상하며 조용히 읊조리고, 생각을 기도로 표현하고 하나님과 사귀을 가지는 교제로서의 기도와 <간구>로서의 기도를 balance 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어른 교인들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